

군산대학교 편입학 합격 수기

‘Never sees the dark side of anything.’

해양산업운송과학기술학부 해양생산시스템전공 박○○

안녕하십니까. 해양산업운송과학 기술학부 해양생산시스템 전공(구 해양생산학과) 졸업생 16학번 편입생 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또래들에 비해 조금 늦게 대학에 진학한 경우였습니다. 보다 전문성이 있는 직업을 가지고자 하던 중, 항해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우리 학교에 편입학을 하였습니다.

편입 전에도 고민을 하였습니다. 당시 하던 일을 계속 했으면 적지 않게 벌 수 있었을 텐데, 늦깎이 학생으로서 학교를 다님으로써 잃게 되는 기회비용도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4년제 대졸 학력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희소한 전공을 통해 특정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기에 더 나은 미래를 그리며 편입학을 결정했습니다.

3년간의 학교생활을 마치고(저희 학과 특성상 편입생은 3년 재학 후 졸업) 2019년 초, 졸업 직후 국립수산물과학원에서 승선조사를 담당하는 연구원으로 취업하여 서해와 남해바다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며 공무원시험 공부를 병행하던 중, 서해어업관리단 어로직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동년 10월에 임용되어 12월인 현재, 어업감독 공무원으로서 국가어업지도선을 운항하며 우리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어업을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처음 편입학을 하였을 때, 이미 1학년 때부터 배워온 학우들과 경쟁을 하려니 솔직히 막막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욱 절실하게 공부하였습니다. 항상 수업 전 일찍 강의실에 도착하여 맨 앞자리에 앉았고, 수업 중에는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 마디라도 놓칠까봐 부지런히 필기를 하였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공부였고, 제 머리가 썩 좋지 않음을 실감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에 학우들이 2주 전에 준비할 때 저는 매 학기 하루하루를 시험기간처럼 보냈습니다. 편입학 후 첫 학기는 아침 6시에 일어나 책을 폈고, 수업이 끝나면 공부를 하다가 새벽 2시에 취침했습니다. 전공수업이 끝나면 그날 배웠던 것을 바로 복습했습니다. 궁금한 것이 생기면 수업이 끝나자마자 교수님께 여쭙었고, 개인적으로도 연구실로 찾아뵈어 질문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사소한 질문도 항상 친절하게, 덕담까지 하며 알려주셨던 교수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표합니다.

그렇게 첫 학기를 치열하게 보내고 성적이 공개되었습니다. 전공 6과목 18학점을 모두 A+를 받게 되었고, 학과를 대표하여 성적우수자로 선정되어 총장님께 표창장과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절실하게 공부를 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제게 있어서는 공부에 자신감을 얻게 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여러 차례 학과 수석을 달성하여 재학 중 총 14차례의 장학혜택을 받는 등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고, 당시 공부했던 전공지식이 이후 공무원시험을 준비할 때 도움이 되었음은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학교생활 중 항상 열심히 공부했다고 자부하나, 여러 진로를 염두에 두고 공부했습니다. 어업감독 공무원이라는 직업 역시 마지막 학년 때 비로소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기업 취업이 녹록치 않다는 사실을 알고 공무원으로 진로를 바꾸었던 것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어업관리단의 어로직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어로산업기사(혹은 어업생산관리기사)라는 자격증이 필요한데, 기사자격증의 2차 시험인 서술형 시험까지 딱 한 달이 남았던 시점에서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던 만큼, 식사 시간과 취침 시간만 빼놓고 하루 종일 공부만 하였습니다. 서술형 시험인 만큼 많이 써보고, 책을 보지 않고 쓰고, 말해보는 방식으로 열심히 준비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가산점 대상 자격증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역시 평소 역사에 관심이 많았기에 약 2주간 공부하여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공무원 필기시험 역시 시험 공고가 나온 이후, 3주간 준비해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자격증 취득부터 공무원 필기시험까지 큰 어려움 없이 해낼 수 있었던 것은 평소 학교생활을 하며 전공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던 덕택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제 첫 공무원 시험은 이어진 면접에서 불합격하며 고배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면접학원을 다녔지만, 면접전형을 제대로 준비했던 것은 처음이었고 필기 합격자 발표 후 면접고사 날까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는 시간이 주어졌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사실에 스스로 큰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그 짧은 시간 동안 면접관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평소 교수님께선 면접과 스피치의 중요성을 역설하셨습니다. ‘스펙이 다가 아니라 말하는 연습도 필요하다’는 조언을 해주셨지만 그것을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귀담아듣지 않았던 것이 패인이었습니다.

막연히 취업만을 목적으로 했던 점에서도 방향성을 잘못 잡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입장에서 공직가치를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으며, 사명감 역시 다소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취업준비 과정에서 학과 공부나, 각종 자격증, 어학성적 등의 스펙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결국 어떤 취업전형이든 마지막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 하는 것은 면접임을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필기 점수는 커트라인임에도 면접에서 뒤집어서 합격한 동기나, 가산점 자격증도 없이 최종 합격한 동기를 보면서 면접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담담하게 회상하지만 면접에서 떨어졌던 당시에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계획했던 것처럼 사기업에 취업하여 승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있을 공무원시험을 다시 준비할 것인지 등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또한 스스로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어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래 좌절해 있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공무원 면접 전 향로표지기사 자격증 시험을 응시해둔 상황이었습니다. 어딘가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원래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열심히 준비하였고, 결국 합격하여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마지막 학기를 학교의 실습선에서 보내며 왜 면접에서 불합격 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록 또래들보다 많은 나이에 학교를 왔지만 당시 저는 학부 졸업반 학생일 뿐이었습니다. 전공과 관련된 직무경력을 가지고 면접에서 어필하는 타 지원자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경력이 없는 한은 아무리 면접 준비를 철저히 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딱 한번만 더 공무원 시험에 도전해보자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직 다음 시험까지 몇 달간의 시간이 있었던 만큼, 졸업 후 시험 때까지 관련된 일을 하며 공무원 시험공부를 병행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을 하며 공부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면접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면 그 방법 밖에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직업을 알아보던 중,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선에 승선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바다를 돌아보며 조사 업무를 하는 연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졸업도 하기 전인 1월 중순, 학과의 모든 커리큘럼을 마치고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연구센터의 연구원에 합격하여 경상남도 통영으로 향했습니다.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업무를 배우면서 동시에 공무원 시험공부까지 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일과 공부를 동시에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회사생활 초창기, 두 번의 국가직 시험에 불합격하기도 했습니다.

연구원 생활이란, 한 달의 반은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반은 조사선에 승선하여 우리나라의 바다를 조사하는 일이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인천 앞바다, 서쪽으로는 한중잠정조치수역의 끝, 남쪽으로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지나 한일 중간수역까지 모두 가보았습니다.

서해바다에서 사방이 중국어선으로 가득한 해역을 통과했고, 자원조사차 해저에서 그물을 끌었는데 온통 중국산 쓰레기들로 가득한 광경도 보았습니다. 이유 없이 중국의 어정선(어업지도선)에게 추격당하기도 했고, 중국 배들이 부설한 어구로 인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까지 진입하지 못해 조사에 어려움이 따랐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 필드 경험을 통해 비로소 우리의 수산자원과 해양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년도 공무원 면접 당시에는 막연히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지원했던 마음이 컸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저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 누가, 언제 제게 지원동기를 묻더라도 왜 어업관리단에 지원했는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상 근무중엔 퇴근 후 곧바로 공부를 시작하여 새벽 2시까지 책상 앞에 있었고, 선상 근무 중에는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배 안에서 책을 보았습니다. 항상 커피를 물처럼 마시며 버텼고, 졸음이 심할 때는 밤잠을 쫓기 위해 커피믹스를 생으로 들여켜 씹어가면서 절실하게 공부했습니다.

필기시험은 직장 업무와 병행해야 했기에 이번에는 약 세 달 전부터 미리 준비했습니다. 서술형 시험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외워도 끝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 하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험 전날은 시험장 인근 숙소에서 새벽 늦게 잠들기 전까지 한 글자라도 더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시험 당일, 1시간 40분이라는 서술형 시험시간이 모자라다고 느낄 정도로 정신 없이 제가 외운 것을 적고 나왔습니다. 시험 당일 필기 합격을 확신했고 다음날 바로 면접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생활과 필기공부까지 하며 면접 준비까지 별도로 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평소 생활 속에서 면접 때 어필할 수 있는 경험들인 선행이나 봉사활동 등을 하는 즉시 기록해두었고, 면접 준비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정장을 입을 일이 거의 없었기에 퇴근 후 관사에 돌아오면 샤워 후 에어컨을 켜놓고 정장을 입은 채 공부를 하였습니다. 면접 당일 정장에 어색해하지 않기 위해서 였습니다.

해양수산부 국가직 면접을 도와주는 학원을 수강하려고 했으나, 회사를 다니는 입장이었기에 개강 날짜에 맞추어 갈 수 없었고, 대신 면접 일주일 전까지 홀로 준비하다가 그때까지 모아두었던 연가를 모두 상신하여 결재를 받았습니다. 제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응원해 주셨던 연구소 박사님들께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당시 학교 대학일자리센터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미 졸업한 입장이었고 직접 찾아뵙는 것도 아닌, 유선으로 자기소개서의 첨삭을 부탁드립니다. 선뜻 도와주신 해양과학대학 담당자 분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사정상 개인적으로 면접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기에 모 스피치학원에서 개인코칭을 받으며 준비했습니다. 적지 않은 수강료를 지불했고, 일반 스피치 학원이었기 때문에 해양수산직렬과 관련된 전문지식은 혼자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과외 형식으로 코칭을 받았기에 공무원 면접을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학원에서 배운 것을 연습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로는 소수 직류이기에 면접 스테디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같은 직류를 준비하셨던 분을 만나 스터디카페에서 모의 면접을 보면서 준비했고, 서로 시간이 맞지 않을 때는 혼자 거울을 보면서라도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결과, 면접 당일 거의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실하게 준비했던 시험이었기 때문에 마음을 졸이며 면접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당시엔 기쁘다기보다는, 긴 터널을 빠져나온 느낌이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여러 차례 학과 수석도 달성했지만 실패 역시 많이 했습니다. 사기업 취업준비에 실패했고, 작년 면접에서도 불합격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취업한 뒤 공부를 병행하면서 불합격하였던 두 차례의 시험들.

‘Never sees the dark side of anything’ 하버드 대학교 출신의 의사이자 작가인 오리슨 스웨트 마든이 한 말이자, 제 좌우명입니다. 길이 아무리 어둡고 무서울 지라도 절대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으면 언젠간 반드시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생각으로 공부했고, 결실을 얻었습니다.

저도 이제 막 공직에 입직한 사회 초년생일 뿐이고, 아직 부족하지만 먼저 취업한 입장에서 해양수산 계열 공무원을 준비하는 후배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포화상태인 육상과는 다르게 바다와 관련된 분야는 아직 블루오션입니다.

해양수산 분야를 선택하신 이상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목표가 아니라면, 그리고 본인이 세운 목표를 포기하지만 않으면 언젠간 그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또래보다 늦게 시작했고, 공무원이라는 꿈 역시 졸업반 당시 꾸기 시작했지만 결국 목표한 바를 이루었습니다. 이 모두 해양수산 분야이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단, 어떤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본인의 적성에 맞는 분야인지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고민하십시오. 교수님들의 조언을 얻고, 현직에 있는 선배들과 소통하십시오. 진로가 결정되었다면 그 방향만 보고 절실하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바다에서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 2019년 12월 출동 중, 서해바다에서